

# 갈라디아서 Galatians



## 서론: 갈라디아서 배경과 구성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 중(행 13~14)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깊은 아픔과 실망 속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메시지 자체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고, 당연히 이스라엘을 넘어(여러 지역/민족에게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섬길 때에는 이미 유대인들 만큼이나 많은 비유대인들로 예수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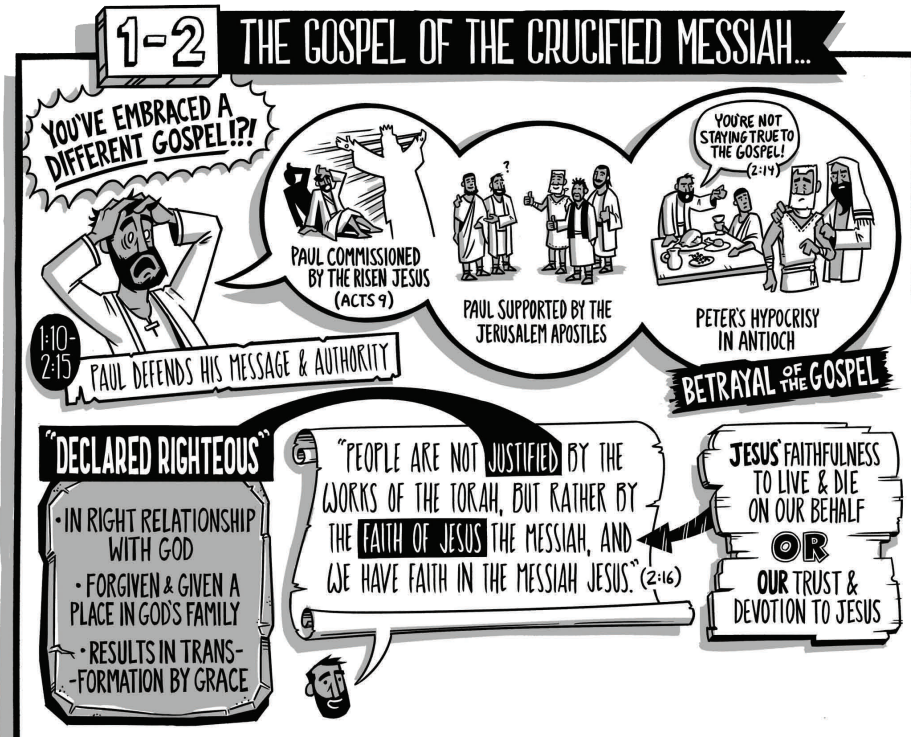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뿐이었고, 그들은 토라(모세오경 또는 율법)에 따라 남성 할례, 정결한 음식, 안식일 준수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토라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와서 바울의 사역을 약화시키며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바울은 마음 아팠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1-2 THE GOSPEL OF THE CRUCIFIED MESSIAH...**

**3-4 ...CREATES A NEW, MULTI-ETHNIC FAMILY...**

**5-6 ...THAT IS TRANSFORMED BY THE SPIRIT**

바울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정리해주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님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새로운 다민족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갈3,4장).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지를 보여줍니다(갈 5,6장).



1.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복음의 진정성과 사도권 변호:**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즉 바울을 폄훼하고 할례를 요구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진정성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갈 1:10-2:15).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아, 비유대인들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행 9장).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간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다른 사도들과 상의할 것이 있어서 간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 그들은 전적으로 바울을 지지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 책망:** 그러나 이 갈등은 생각보다 골이 더 깊었습니다. 베드로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러 안디옥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이 안디옥에 나타나자, 베드로는 그들의 압박에 굴복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은 베드로의 위선에 맞서서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 요구하는 것의 부당함:** 바울이 볼 때, 새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이는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갈 2:16).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 아주 뜻깊은 구약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transformed)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계명들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음(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문구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고 죽으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뜻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신뢰와 헌신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요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신뢰함으로써만 의롭게 되지,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하여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될 수 있는지 (3-4장), 또 그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5~6장).

## 2. 하나의 새로운 다민족 가족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창 12,15장).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되었는지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민족들이 자신과 자기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창12:3, 22:18).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믿을 때 그분께 속한 것이 믿는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19-20).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거나, 예수님의 언약 가족 일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일까? " (갈3:19) 바울은 간단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설명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알려줍니다 (롬7,8장). 율법의 계명들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바울은 이 때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한참

뒤였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율법서들(모세오경)을 잘 읽어보면, 일시적인 방편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에는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이 다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돋보이게끔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땅히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이 유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갈3:22).

하지만 율법에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이스라엘이 바르느 길로 가게 하는 엄격한 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갈3:24).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계명들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저주와 결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3:28).

그래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거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자유와 성령의 선물을 소홀히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오직 한 민족(이스라엘)에게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 3.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다민족 가족

이에 대해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주어진 입증된 지침들이다. 어떻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울 것인가?”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기를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변혁시키는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율법은 선하고 지혜”로우며, 예수님 말씀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5:14)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 5-6 ...THAT IS TRANSFORMED BY THE SPIRIT

**THE LAWS ARE GOOD**  
SUMMARIZED BY "LOVE YOUR NEIGHBOR" (LEVITICUS 19:18)  
...BUT THEY DON'T GIVE POWER TO OBEY THEM

**THE GOOD NEWS**  
• JESUS FULFILLED THE LAWS ON OUR BEHALF  
• LIVES IN US THROUGH THE SPIRIT  
• NEW HUMANS WHO LOVE OTHERS

**OLD HUMANITY**  
envy  
IDOLATRY  
DIVISION  
MURDER  
SEXUAL IMMORALITY  
SELFISHNESS

**FRUIT OF THE SPIRIT**  
LOVE KINDNESS PEACE  
PATIENCE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JOY GOODNESS

**THIS FRUIT REQUIRES CULTIVATION**  
(it's not automatic)

"IF WE LIVE BY THE SPIRIT, WE HAVE T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5:25)

THROUGH THE SPIRIT, JESUS MAKES US INTO PEOPLE WHO LOVE GOD & OTHERS, AND FULFILL

**"THE TORAH OF THE MESSIAH."**  
(6:2)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이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관계와 온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이런 행위들을 금하기만 하는 반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성령에 의지해 살고,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며, 그의 가족 안에서 이것이 재생산되어, 그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열매처럼 잘 가꿔야 합니다. 바울의 말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갈 3:25).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습관은 잘라내야 하고 새습관을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님의 율법"(갈 6:2)을 이루게 됩니다.

## 결론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나 할례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 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창조, 다민족으로 구성된 메시아의 새 가족,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WHAT MATTERS IS GOD'S NEW CREATION**  
6:15  
THE NEW, MULTI-ETHNIC FAMILY OF THE MESSIAH...  
...FULL OF FAITH IN JESUS...  
...LOVING GOD & OTHERS IN THE POWER OF THE SPIRIT



**THE BACKSTORY:**

YOU MUST OBEY THE TORAH'S LAWS TO FOLLOW JESUS!

**THE DEBATE (SEE ACTS 15)**

ISRAEL SET APART BY PRACTICES COMMANDED IN THE TORAH

JEWISH MESSIANIC MOVEMENT

NON-JEWISH CHRISTIANS

#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FORGET PAUL! YOU NEED TO GET CIRCUMCISED!

CHURCHES OF GALATIA

(SEE ACTS ch.13-14)

**WHAT MATTERS IS GOD'S NEW CREATION**

THE NEW, MULTI-ETHNIC FAMILY OF THE MESSIAH... **6:15**

...FULL OF FAITH IN JESUS...

...LOVING GOD & OTHERS IN THE POWER OF THE SPIRIT

## 1-2 THE GOSPEL OF THE CRUCIFIED MESSIAH...

YOU'VE EMBRACED A DIFFERENT GOSPEL!?

PAUL COMMISSIONED BY THE RISEN JESUS (ACTS 9)

PAUL SUPPORTED BY THE JERUSALEM APOSTLES

PETER'S HYPOCRISY IN ANTIOCH

BETRAYAL OF THE GOSPEL

PAUL DEFENDS HIS MESSAGE & AUTHORITY

**"DECLARED RIGHTEOUS"**

- IN RIGHT RELATIONSHIP WITH GOD
- FORGIVEN & GIVEN A PLACE IN GOD'S FAMILY
- RESULTS IN TRANSFORMATION BY GRACE

"PEOPLE ARE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TORAH, BUT RATHER BY THE FAITH OF JESUS THE MESSIAH, AND WE HAVE FAITH IN THE MESSIAH JESUS." (2:16)

JESUS' FAITHFULNESS TO LIVE & DIE ON OUR BEHALF

OR

OUR TRUST & DEVOTION TO JESUS

**THE HEART OF PAUL'S GOSPEL**

WHEN PEOPLE TRUST IN JESUS, WHAT'S TRUE OF HIM... **...BECOMES TRUE OF THEM**

WE BELONG TO JESUS' FAMILY... ONLY BECAUSE OF WHAT HE DID FOR US!

"I HAVE BEEN CRUCIFIED WITH THE MESSIAH & IT'S NOT I WHO COME BACK TO LIFE, BUT THE MESSIAH LIVING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 GAVE HIS LIFE FOR ME." (2:19-20)

## 3-4 ...CREATES A NEW, MULTI-ETHNIC FAMILY...

ABRAHAM (GENESIS 12, 15)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 YOUR OFFSPRING. (GEN 12:3, 22:18)

God

DECLARED RIGHTEOUS BY HIS FAITH IN GOD'S PROMISE (GENESIS 15:6)

GIVEN TO ISRAEL LONG AFTER THE PROMISE TO ABRAHAM

ALWAYS INTENDED AS TEMPORARY

SO WHY THE LAWS OF THE TORAH? (SEE ROMANS 7-8)

POSITIVE ROLE

NEGATIVE ROLE

FAILURE SIN

THE LAWS IMPRISONED EVERYONE UNDER THE POWER OF SIN." (3:22)

GOD'S PURPOSE: ONE LARGE, MULTI-ETHNIC FAMILY RELATING TO HIM ON THE BASIS OF FAITH

...UNTIL THE OFFSPRING COMES.

STAY IN LINE... (3:24)

• FULFILLED THE LAW BY loving GOD & NEIGHBOR

• TOOK THE CURSE OF ISRAEL'S SIN INTO HIMSELF

GOD'S BLESSING TO ALL (3:28)

REQUIRING NON-JEWISH CHRISTIANS TO OBSERVE THE TORAH:

- ACTS AS IF JESUS DIDNT FULFILL GOD'S PROMISE OR DEALT WITH OUR SINS
- NEGLECTS THE FREEDOM THAT JESUS GAINED FOR US
- LIMITS GOD'S BLESSING TO ONE ETHNIC FAMILY

## 5-6 ...THAT IS TRANSFORMED BY THE SPIRIT

HOW WILL NON-JEWS LEARN GOD'S WILL WITHOUT THE LAWS?

THROUGH THE SPIRIT OF JESUS!

**THE LAWS ARE GOOD**

SUMMARIZED BY "LOVE YOUR NEIGHBOR" (LEVITICUS 19:18) ...BUT THEY DON'T GIVE POWER TO OBEY THEM

**THE GOOD NEWS**

- JESUS FULFILLED THE LAWS ON OUR BEHALF
- LIVES IN US THROUGH THE SPIRIT
- NEW HUMANS WHO LOVE OTHERS

**OLD HUMANITY**

envy  
IDOLATRY  
DIVISION  
MURDER  
SEXUAL IMMORALITY  
SELFISHNESS

**FRUIT OF THE SPIRIT**

LOVE  
KINDNESS  
PEACE  
PATIENCE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JOY  
GOODNESS

THIS FRUIT REQUIRES CULTIVATION (it's not automatic)

THROUGH THE SPIRIT, JESUS MAKES US INTO PEOPLE WHO LOVE GOD & OTHERS, AND FULFILL

"IF WE LIVE BY THE SPIRIT, WE HAVE T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5:25)

**"THE TORAH OF THE MESSIAH!"** (6:2)

created by the Bible Project